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8호 [부제 제25461호] 주제 105 (2016)년 11월 13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소장 박정천동지,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인 육군중장 리성국동지, 군단정치위원인 육군소장 리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사나운 풍향을 헤치고 남조선괴뢰군 강패무리들이 동지를 들고있는 연평도가 손에 잡힐 듯이 바라보이는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작전적구상에 의하여 새로 조직된 갈리도전초기지는 서해해상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적들의 위협천만한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진압하고 우리 조국의 신성한 평해를 굳건히 방위하며 만약 적들이 조금이라도 허튼짓을 한다면 즉시 열적의 포화를 불의울수 있게 전면적 강위력한 화력타격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별실, 교양실, 식당, 온실등을 돌아보시고 지휘관들은 색다른 음식이 한가지 생겨도 지식들부터 생각하고 낚시가 조금만 차지도 지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심정으로 군인들을 따듯이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온을 내게 하여 그들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하



장재도방어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편편 휘날리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도 다시 비읍게 된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연평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위험천만한 자기들의 설초소에 벌써 네번째로 찾아오신 원수님을 위하여 《만세!》의 환호성을 리쳐올리었다.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어린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향명어린이를 알아보시고 태어난지 6개월밖에 안된 얘기를 안아주던 날이 었게살았는데 플라보게 있다고 살뜰히 두부를 어루만져주시었으며 방어대장의 딸애가 그린 그림들도 한장, 한장 환한 미소속에 보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어대의 별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온실, 축사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생활 개선이자 싸움준비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위해 자기들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들을 위해 신랄장이 땀도록 뛰여야 한다고, 병사들을 위하는 지휘관들의 마음이 뜨거우면 병사들은 추위도 추운 줄 모르며 천무모의 사망을 부어주는 지휘관들이 결에 있으면 적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전선수역에서 생활에도 마음이 든든해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시면서 설초소군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파로운 언덕길을 오르시며 감시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연평도를 굽어보시면서 적의 역량과 기세들의 배치상태와 적정을 토해하시고 새로 조직된 갈리도전초기지의 역량과 기세의 배치상태, 제4군단판하 부대들의 전선해상경계근무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박정천 포병국장으로부터 갈리도전초기지를 포함한 서남전선포병부대들의 연평도대

상문라격임부분담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화력라격계화전부문건을 승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투진지들을 돌아보시고 최고사령부의 직전적기도에 맞게 갈리도전초기지의 전투진지들을 잘 꾸렸다고, 모든것이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해안차단들을 더욱 견고하게 설비하고 감시체계를 완비하며 섬경계근무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새로운 주제적섬포병전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포병화력지휘통신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린첩성방어대들과의 화력협동과 지휘를 짜고들어 적대상들에 대한 화력라격의 일치성과

순차성, 신속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갈리도전초기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갈리도전초기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섬 갈리도뒤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초소를 목숨바쳐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초기지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우리 당의 선군혁명전선과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장재도방어대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이곳 방어대에서도 수산부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과의 대결은 불과 불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방어대 군인들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계급무쟁의 제1선에 선 사회주의수호자들로, 조국통일의 맹장들로 역세계 준비시키자면 그들에게 사상적양식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컴퓨터 자료전송체제를 리용하여 군인들이

매일 탕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상식자료들도 학습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립독도서들과 더 많은 교양자료들을 내려보내주어 빨찌산식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게 하자고,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군인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소유한 팔방미인들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한쪽의 그림자라고, 주변환경정리를 정말 잘하고있다고, 땅에서 품들어 꾸러준 병실들과 살림집들을 깨끗이 관리하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8월 방어대를 돌아보면서 기후풍토에 적합한 나무들과 지피식물들을 선정하여 심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킬데 대

여 지시하였는데 그동안 나무심기를 잘한것이 알린다고, 장재도가 불라보게 달라졌다고, 맨땅이 드러나 빨찌산이던 장재도가 푸른 섬으로 전변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방어대의 전투임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활력진지들을 돌아보시면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성적인 전투돌원준비실재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어대에 서 포무기를 비롯한 전투기술기재들에 대한 정상관리를 정말 잘하고있다고, 온 나라에 소문난 방어대가 역시 다르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은 자기들의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싸움의 날 불비속을 함께 헤쳐가야 할 전우로 생각하며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해야 한다고, 총대에는

탕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군인들의 높은 총정신과 리없이 깨끗한 향심이 비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포병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전에 써먹을수 있는 화력타격조직과 지휘능력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싸움의 전지에서 전투진지들을 더욱 요새화하며 위장을 잘할데 대한 문제, 급변하는 정세와 전진정황의 요구에 맞게 항시적으로 강력한 화력타격준비태세를 갖추데 대한 문제 등 장재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 군인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

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의 전체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위험천만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며 오랜 시간 함께 계시며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원추적멸을 위한 백전백승의 방략을 밝혀주시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판별하여 조국의 최전방성초소를 당중앙결사옹위의 성새, 김정은결사옹위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 북부전선에서 보낸 소식

###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북변땅의 기적적승리

####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 인민들이 50여일동안에 1만 1928세대의 소총, 단총살림집 완공

조국의 북변땅에서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북부전의 승전고개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임신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북부전선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비롯한 심장마다에 새기고 200일전투의 주라적방향을 최전방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 인민들이 피흘리지 않고 인민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을 남김없이 완수하고 어머니 우리 당에게 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려왔다.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 년간 종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신의 주팔프공장에서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 통치수려한 통약산기슭에 전쟁로병보양소가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 사람갈, 사람수수가공기지건설 완공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조선인민군 북부전선부대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완수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의 모범을 따라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려간다

## 집중적인 물고기잡이전투가 벌어지고있는 통천앞바다 중심어장에서

### 단축된 하륙시간, 늘어나는 물고기잡이실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계획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응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행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성아래 각지 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로인들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인들의 모범을 따라 통천앞바다 중심어장에서 현일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지난 10월말 집중적인 어로전투에 진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수산성적으로 잡은 물고기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5배이상이나 된다.

지난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이 실적이 보여주는바와 같

이 통천앞바다 중심어장에서 어로전투를 벌리고있는 고기배들의 활동은 분석해보면 확실히 종전과 다른 새로운 질풍이 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고기배들의 물고기잡이시간이 훨씬 늘어났는데 물고기하륙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된것은 매우 시사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이러한 결실이 이뤄지게 되었는가. 인민경제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모든 성과의 밑바탕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정책을 대하는 일꾼들의 원칙과 믿음이 바르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보면 물고기잡이실적이 올해 도무렵이전투에 앞서 사면준비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말하여 한 고리를

풀어 들, 셋을 얻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한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것은 통천 앞바다 중심어장에서 어로전투를 벌리고있는 작업선들의 물고기하륙시간이 대폭 줄어든것이다. 수산성 일꾼들은 통천앞바다 중심어장에 위치를 정한 3척의 가공모선인 《삼천리-1》호와 《아달산》호, 《○-운-18747》호에 물고기를 최단시간에 부러울수 있는 3척의 가공모선들인 《삼천리-1》호와 《아달산》호, 《○-운-18747》호에 물고기를 최단시간에 부러울수 있는 3척의 가공모선들을 배치하였다. 물론 지난해에도 여러척의 가공모선들이 중심어장을 분할하여 차지하고 가파른 곳에서 어로전투를 벌리는 고기배들로부터 물고기들을 넘겨받아 해상에서 직접 물고기하륙을 하였다.

이것은 개별적인 고기배들이 어떤 잡은 고기를 물고기로 옮겨가는 시간을 줄이고 고기잡이 시간을 늘이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수산성 일꾼들은 올해에는 한 길은 더 나아가 3척의 가공모선에 물고기부림설비를 갖추어 놓는 조직사업을 하고있었다. 그렇게 하니 종전에 물고기를 작업선들로부터 가공모선으로 옮겨갈 때 걸리던 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되게 되었다. 이것은 고대

로 작업선들의 물고기잡이시간을 늘이는데로 이어져 단위시간 동안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중심어장에서 분산적으로 어로전투를 벌리는 많은 작업선들은 앞서지나 뒤처지거나 하며 경쟁적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싣고 수시로 가공모선으로 들어간다. 그런 조건에서 3척의 가공모선들은 단위시간당 가공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물고기부림설비를 정비해 모두 처리하는데 힘썼다. 이 점까지 고려한 작업선들은 2척의 운반선들도 동시작업으로 그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사업을 따내세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작업선들마다 잡은 물고기들을 가공모선으로 옮겨가는 거리를 단축하여 적지 않은 연유를 절약하고 물고기잡이시간도 그만큼 늘이게 되었다. 지금 통천앞바다 중심어장에서 어로전투를 벌리고있는 작업선들의 선장들과 어로인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물고기잡이실적이 높아진 중요한 요인을 하나를 바로 이것으로 꼽고있다.

당의 수산정책을 따르며 가나나 실정으로 접수하고 한 고리를 풀어 들, 셋을 얻으며 전진의 앞장에서 물고기부림을 열어나가고 있는 작업선들의 모범적인 사업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충성

물고기의 정선력과 과학기술의 우월이념

하루 1차씩 진행되는 화상회의

요즘 수산성 일꾼들과 수산사업소 일꾼들은 하루 1차씩 진행되는 화상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잇따라 회자되고 있다.

내각과 수산성 일꾼들, 성아래 각 수산사업소 일꾼들이 참가하는 이 화상회의에서는 수산성적인 하루 물고기잡이량과 연유수

비량은 물론이고 각 수산사업소들의 물고기잡이실적과 연유수비량, 작업선들의 가공능력도 엄격히 총화된다.

뿐만아니라 수산성아래 각 수산사업소들의 물고기잡이실적이 몇번재부터 마지막까지 발표되고 성아래에서는 경험치, 결합에서 얻은 교훈이 분석된다. 그런

것으로 하여 이 화상회의 결과를 각 수산사업소 어로부문에까지 배급 기다리고 있다.

전시전투총화를 짓는 분위기에서 하루 1차씩 진행되는 이 화상회의는 일꾼들은 물론 어로부들도 자기의 일과를 집중하는 계기로 되고있으며 따라잡는 계기로 되고있으며 물고기잡이실적을 높이기 위하여는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통천앞바다 중심어장에 위치를 정하고있는 수산성 일꾼들은 하루에 여러차례의 각 수산사업소 작업선들에 어항을 통보해주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시말하여 배 작업선의 선장들에게 배 작업선의 선장들에게 어항을 통보해주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시말하여 배 작업선의 선장들에게 어항을 통보해주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

어항통보와 경험교환

서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작업선들은 이러한 사업과 함께 작업선들을 중심어장의 솜씨, 어제선,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 수심이 깊어 배 작업선의 선장들에게 어항을 통보해주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시말하여 배 작업선의 선장들에게 어항을 통보해주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

에 기초한 어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장들은 때로는 집중적인 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하고있다. 이것은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일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 각 수산사업소 어로부들이 단위시간당 잡은 물고기를 잘라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다.

기초한 어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장들은 때로는 집중적인 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하고있다. 이것은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일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 각 수산사업소 어로부들이 단위시간당 잡은 물고기를 잘라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외 부류라면 관마음 함부로 뽐쳐일어나 산도 옮기며 바다도 배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을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지난 8일 양화수산사업소 프탈선 《청년-09-102》호는 경주를 과도를 헤쳐가며 어는 한 해역으로 향하고있었다.

《선장동지, 적정하십시오. 동무들, 빨리 나가십시오. 하나 놓으십시오!》

묵직한 물고기소리를 감관으로 한mhm 끌어올리며 권양기 운동용 통수동무가 구명용 지자 김충성, 리영일, 주현덕, 리승철동무들이 합세하였다. 김철현, 최우현, 김진혁, 조충현동무들도 바다를 이시작하듯 운용을 펼치는 속에서 중언일 양양과 엄을 벌리었다.

바다물온도자료에 의거한 어장선택

물고기는 물온도를 따라 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작업선의 어로부들이 해당 해역의 물온도를 손으로 훑어볼 때는 물고기잡이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이다.

어항통보와 경험교환

서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작업선들은 이러한 사업과 함께 작업선들을 중심어장의 솜씨, 어제선,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 수심이 깊어 배 작업선의 선장들에게 어항을 통보해주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시말하여 배 작업선의 선장들에게 어항을 통보해주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

기초한 어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장들은 때로는 집중적인 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하고있다. 이것은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일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 각 수산사업소 어로부들이 단위시간당 잡은 물고기를 잘라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다.

## 우리는 만선의 귀항길만을 안다

양화수산사업소 프탈선 《청년-09-102》호 어로부들의 투쟁

소리가 거들 울려나오는 대항기를 향해 선장은 이렇게 제지하며 힘찬 구명용 내었다.

《무당!》

전투가 시작되었다. 기다리고 있더라도 한두 얼마후부터 바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물결높이 2~2.5m, 바람속도 초당 13~18m/s

과도가 조라실을 휘둘러 날아넘고 금시라도 모든것을 통째로 삼켜버릴듯 바다물이 갑판에 사정없이 휩쓸었다. 어로전투는 물결이 항해하기조차도 어려웠다. 배머리가 바다속에 사정없이 관두버렸다가는 또다시 무성하게 솟아오르는 방향이 흔들려 갑판 위에서 몸을 가누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칫하면 바다물속에 어항이 들어 모든것이 끝장날수 있는 추에서도 어로부들은 무당작업을 하였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이들은 사나운 적 무서움에서 두시간 동안의 간고한 투쟁을 벌려 20t이상이 넘는 도무레기를 인양하여 선상으로 옮기게 하였다. 양화수산사업소 프탈선 《청년-09-102》호 어로부들은 불리한 날씨가 계속된 8일 하루동안에 만도 11의 연유로 44t의 도무레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만선기를 휘날리며 통천수산사업소 하륙장으로 귀항하는 모두의 눈가에는 뜨거움이 가득 차 있었다. 풍량을 헤쳐 버린 안아는 성과에서 더욱 소중했고 또 한편 정선력의 강자도 성장한 전진의 하루에서 더욱 감동되었다.

그 시각 모두의 실감마당에서는 이런 체험이 울려나오고 있었다.

조국여, 우리를 믿으라!

우리는 만선의 귀항길만을 안다!

본사기자

## 선창엔 물고기 가득, 노래도 절로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가공모선 《삼천리-1》호에서

《알았다.》

수산성 무극장 배회선동무와 《17928》호 선장 리주원 동무가 대외기로 서로 주고받는 말이다.

《17928》호가 와달자 《삼천리-1》호 기동부대원장 황명철동무가 능숙한 임승으로 물고기부림설비와 연결된 물고기수송통을 내려보냈다. 《17928》호 선원들이 그 판을 받아 물고기가 가득한 배의 선상에 쏟아놓는다. 이어 《삼천리-1》호에 설치된 물고기부림설비에서 분출된 물음이 울린다. 그러자 《17928》호의 선장은 자랑스러운 물고기수송통을 따라 불치된 폭죽처럼 《삼천리-1》호의 갑판위에 옮겨져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는데 어느새 물고기갑판이 수심에 닿는 도무레기가 차고넘친다. 《만일갑판에 정말 많이 잡았지만, 하지만 동무들보다 더 앞서달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걱정말게, 매일은 꼭 우리가 앞설테니.》

이런 말을 주고받는 《17928》호 어로부들의 얼굴에도, 《삼천리-1》호 선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어 우리는 바다에 떠있는 가공모선들 방방에 하는 갑판의 가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는 원포동무들을 통해 평



《바다 민풍》의 노래가 절로 나오는 가공장, 시간이 다르면 물고기부림설비가 보이고있는 저장실... 우리는 이곳에서 당의 수산정책관행을 위해 신익일이 펼쳐나선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부들, 가공공들의 미더운 모습을 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충희







# 박근혜는 항복하라, 민중이 승리하는 레일을 만들것이다

## 남조선 전지역에서 110만여명 제3차 범국민투쟁 전개, 서울에서 100만여명 참가, 청와대를 에워싸고 박근혜의 퇴진을 완강히 요구

보도물에 의하면 12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청와대역내 박근혜역도를 기어올려 권력의 자리에 끌어내리기 위한 《보이자, 분노하라, 내러오라 박근혜》 제3차 범국민투쟁이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었다.

로동자, 농민, 대학생, 중, 고등학생, 빈민, 학자, 문화예술인, 장애인,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무려 110만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펼쳐진 최대의 악녀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자들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종로구와 용지로, 대학로, 남대문, 서울역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인집회를 가진 민주로동자 산하로조들, 대학생, 청소년학생단체들, 종교인단체들을 비롯한 범국민투쟁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대남기, 한상과 함께 민중의 대남격투! 박근혜 퇴진! 2016민중총궐기》 집회를 가졌다.

전지역에서 모여온 군중들, 야당과 일부 어당원들까지 합쳐 무려 100만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박근혜에 대한 분노와 중요성으로 지켜진 초분바다를

결정하였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4. 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미 모든 국민들로부터 퇴진명령을 받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세월호》로참사 1년을 추모하는 국민의 고통을 차별로 막고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공격했다고 하면서 그는 참사로 인한 300여명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사드》제지청구 성주투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사드》제지 투쟁을 최순실의 결정하에서 미국의 무기제작사가 그를 등에 업고 100조원여치의 무기를 남조선에 팔아먹었다고 규탄하였다.

군부당국이 제정하려고 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조선반도를 전쟁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부정추방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남기농민들의 딸은 박근혜정권이 농업에 대한 사교가 일어났지만 단 한번도 책임을

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역도년이 자기 폐기비들을 감싸기 위해 《사과》를 내놓을 것을 보고 《정부》에 갇혀있던 기대가 모두 사라졌다고 개탄하였다.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그는 정의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박근혜추방사건》의 본질을 부패와 무능의 결정체이며 민중의 분노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더 이상 두고보고있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중은 국정농탁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뿐 아니라 그동안의 민생파탄과 정화위험을 규탄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려는 열망을 담아 투쟁에 나섰다고 선언문을 밝혔다.

선언문은 국정농탁의 중심에서 박근혜 퇴진시키고 민중이 승리하는 레일을 만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언문항목에 이어 참가자들은 5개 방향으로 나누어 주요도

를 따라 《박근혜퇴진》의 비박의 의의들을 참가하였다.

《현장에서 민심을 읽기 위해 나섰다.》고 하면서 그들은 《박근혜의 국정농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분노를 느꼈다. 중언한 목소리를 외면할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초분들 든 시민들의 행렬을 통해 분노한 민심이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하수들이 모른것을 내뽐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감정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릴것 같다.》《국회에서 보는 민심이 밖에서 보는 민심은 분명히 다르다.》고 토로하였다.

시위자들을 강제연행하는 데 격분한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김을 비겨달라》, 《정화시위 보장하라》고 해치며 경찰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청와대앞에서의 투쟁투쟁에 이어 참가자들은 또다시 초분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국정을 통괄하여 민생을 도란에 빠뜨린 역도년에 더



### 서울에서 각계층의 사전집회들 진행

【평양 11월 12일 남조선중앙통신】보도물에 의하면 12일 박근혜(정권)에 항거하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하기 위해 남조선 각지에서 서울로 모여온 수많은 군중이 기본집회에 앞서 시내 곳곳에서 제정발사집회들을 가졌다.

광화문광장과 시청 주변, 동화면세점, 형제광장 등 서울의 주요공지들은 아침부터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각계층 단계성원들과 시민들로 차고넘었다.

민주로동자 서울광장에서 로동자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단체는 최순실이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지어 인사분야까지 위력적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용과역으로 저항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해고되어야 할것은 로동자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이고 집압당해야 할것은 박근혜(정권)를 비롯하는 《세누리당》이라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박근혜퇴진을 넘어 무능한 박근혜(정권)를 비교하고 책임이 없다고 꼬리자르기하는 모든 세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로동자 인본로조, 보건의료로조가 머리부터 각각 집회들을 가지고 무역인본연 청산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로동자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행하였다.

《농민의 길》은 남대문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정권 중심으로 최순실, 세월, 보수연립, 법조계, 정치권이 한통속이

되어 이 사회를 맡아먹고있다는 것이 낱말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당대에 할것없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국공무원로조 성원 2만 2000여명이 용지로입구에서 《퇴진 박근혜》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퍼피집회와 퇴진과 성과 퇴출을 제기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국교수연구자이상시국회의 성원들은 보건직에서 결의집회를 가지고 최순실과에 의한 국정농탁사태를 심판하며 박근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퇴진하라고 하였다.

전국경찰청장제정철폐는 일반시민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 《박근혜퇴진 정대동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시카기 자회회》를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그동안 장애인자격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에게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시키라고 요구하였지만 그가 아니라 최순실에 대해 말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도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당성제정철폐, 여성민주회비 비롯한 9개의 여성단체들은 종로구 역사박물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세누리당》과 대대적으로 이단 사대의 광명자로서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남조선 야당들 박근혜역도에게 권력이양을 요구, 범국민초분집회참가를 위한 총동원령 하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12일 남조선 야당들이 민심의 뜻대로 권력을 전면적으로 넘길것을 박근혜에게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민주의에 의해 남로 높아가는 민심의 초대형폭풍을 우주의 기술도 막을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대통령》이 미련을 버리고 전면적인 권력이양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 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른것만큼 박근혜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여 스스로 정치적, 법률적으로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모든 야당들이 12일의 범국민초분집회에 참가할데 대한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지역의 야당성원들은 서울로 모여 범국민초분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앞선 예정된 장소들에서 각각 《박근혜-최순실제지드 전국당원규탄집회》들과 시위운동, 거리진행 활동 등을 벌일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탁, 부정부순으로 무너진

### 유성기업 로동자들 청와대로의 무릎걸음행진으로 박근혜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

파괴정권은 대협에 시민들이 들어 있다는 구실을 대며 가로막아 나서고 하였다.

각본 로동자들은 그제야 바다에 이르며 행진보장을 요구하였고 시민들은 경찰의 폭압을 규탄하면서 로동자들에게 덧붙이 나 모뎀을 넣어주어 고무하였다.

파괴정권이 대협을 해산시켜 보려고 발악하였지만 로동자들

과 시민들은 끊임없이 행진을 이어나갔다.

행진대렬이 청와대주변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박근혜 퇴진》 구호를 편이여 웨치며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행진참가자들은 경찰의 탄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결구하였다.

그들은 회사가 로동자들을 감시하고 그 기록에 따라 월급을 삭감한다, 왜 삭감했는지 따지면 경고장을 보내어 경찰을 소환한다, 유성기업 로조원들을 고소한것만도 1300건이 넘는다는, 경찰과 고용로동부, 정보원, 청와대까지 한 통속이 되어 로동자들을 죽게 한다, 우리 손으로 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2일 아침 유성기업 로동자들은 민중총궐기투쟁이 벌여진 서울광장을 향해 또다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들뒤인 5일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미 금고와 내용물을 빼돌린 뒤였다고 강조하였다. 최순실이 권한한지 31시간만에 소환된데 이어 여론포화사와 관련된 압수수색마저 이루어지면서 주요증거들이 없어졌을것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있다고 방송은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